

● 연중 제 19주일 강론

세여자와 어린이 빼고 남자만도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여든 모든 사람을 흥분시키고도 남았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을 보고 그 분이 특별한 분이심을 직감했을 것이고, 자칫 분 위기에 휩쓸려 들뜬 군중과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저질렀을 법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떠나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배불리 잘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모하게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 군중의 가벼운 심리를 잘 파악하셨습니다. 위험한 유혹입니다. 백성들한테는 먹고 즐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의 유혹이, 예수님께는 양식만 대주는 메시아로 전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재촉하십니다.

군중을 다 보내시고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홀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워야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방금 떠나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일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기에 권력을 잡으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느님의 계획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극복하고 온 인류가 자유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앞으로 남은 여정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제자들은 바다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그들만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먼저 가 있게 하신 곳은 겐네사렛 호수 ‘건너편’으로 이방인의 땅입니다. 늦은 시간에 보호자도 없이 가게 된 곳이 하필 낯선 곳입니다. 배는 풍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오십니다. 파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명인 줄 알고 혼비백산합니다. 하느님 체험이 늘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두려울 정도로 놀람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제자들의 운명은 바뀝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자 가장 먼저 용기를 냅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배를 타야만 물을 건널 수 있다는 자신이 만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본 베드로는 곧바로 물에 빠져듭니다. 하느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만이 불안한 현실과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는 길입니다. 약한 믿음으로는 역풍에 건널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즉시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실 때 주변의 소용돌이는 잠잠해지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받아들일 때 바람은 멎고 불안은 사라지며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삶의 한밤중, 폭풍우의 한복판에 서더라도, 불안정한 상황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체험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목격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위대한 신앙고백을 합니다.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요동치는 세상이라는 파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간 뒤엔 하느님의 아드님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참용기가 생깁니다.

소란스럽고 복잡다단한 삶에서 중심을 잡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한 번씩 몰아치는 폭풍우 앞에서는 더더욱 속수무책입니다. 두렵고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두터운 신뢰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거센 바람에 맞설 용기를 줍니다. 바다도 믿을 강한 이를 떠받칠 정도이니 물속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에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몰두합시다. 어떤 상황에서서도 침착하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타셨습니다.

강지숙(한남성서연구소 수석 연구원)
희망이란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공소일반공지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 었디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리러 뵈옵수록 전혀 알 길 없습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없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서부공소 동부공소 야외미사 관계로 이번 주는 런던 조원형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해 주십니다.

● 한영 자판기를 구매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소 기금 마련 : \$40)

● 정기 야외미사 안내

일시 : 9월 2일 오후 2시
장소 : Laurel Creek Conservation Area (The Critter Shelter) 625 Westmount Rd. Waterloo

● 청소년 캠프

- 일 시 : 8월 25일~27일(월~수)
- 회 비 : \$70
- 준비물 : 침낭, 운동화, 샌들, 수영복, 세면도구, 따뜻한 긴팔 옷, 여벌 옷
- 접수마감 : 8월 10일
- 문의: 노재현 청소년부장 (C:519-590-4493)

● 친교 식사를 시작한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협조 하에 원활히 진행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본당이 되었을 때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자는 취지하에 기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것이 아니라 교우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아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봉헌합시다. 오늘은 교무금 내는 날입니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정숙하고 깨끗이 사용합시다.

●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교우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개설한 우리 공동체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www.catholic.or.kr/seobunews

가입 문의: 서기(한택종 519 883 8488)

● 주간 전례

- ▶8월 12일(화) 오후8시, 연중 제19주간 화요일
- ▶8월 14일(목) 낮 12시, 성 콜베사제순교기념

●꾸르실료 254차 남성 주말

일 시: 08년 9월 18(오후6시)-21일(오후6시)
장 소: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참가비: \$290
신청및 문의 : 이해신(요셉)형제
마 감: 8월 31일

● 차동엽 신부님 특강

무지개 원리의 저자 차동엽 신부님의 긍정적인 삶과 무지개 원리에 관한 특별강좌가 있습니다.
일시: 8월 27일(수) 저녁 7:00 미사로 시작하여 7:30 -10:30까지 진행
장소: 토론토 한맘 성당

●예수회 구정모 신부님 강의

일시: 9월 2일-3일(한맘), 4일-5일(성심)
주제: 전례와 생활
시간: 7시미사후 2시간

사랑의 위대함

그대가 지금 육중한 운명의 바퀴 밑에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절망할 필요는 없다.
하느님은 큰 그릇이 될 인물에게는 반드시 큰 시련을 먼저 주는 법이니, 기꺼이 감내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숙성시켜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대를 짓누르고 있는 운명의 바퀴를 그대 스스로 내던질 수 있는 힘을 배양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또 다른 운명의 바퀴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구출하고 만민에게 사랑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역사(力士)로 성장하게 되리라.

* 정말 시련의 무게만큼 영혼이 자라나 나중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면, 아무리 큰 시련도 사랑 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 어떤 시련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이 아침 다시 한 번 가슴 속 깊이 품어봅시다.

미 사 전례

해 설 |이 민 차주 해설 김근효

화 답 송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자애를 보이시고, 주님의 구원을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28)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봉 헌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 체 (175) 이 보다 더 큰 은혜와
퇴 장 (1) 나는 믿나이다

독 서

8 월 10일	김용하	김희선
8 월 17일	장철원	장혜라
8 월 24일	김근효	김순희

봉 헌

8 월 10일	이동기	이정숙
8 월 13일	김용하	김희선
8 월 24일	장철원	장혜라

복 사

8 월 10일	류지홍	김건우
8 월 17일	박규환	이현재
8 월 24일	구한힘	이수빈

전 교

8 월 10일	환희팀	8 월 17일	영광팀
8 월 24일	장미팀	8 월 31일	백함팀

2008 년 8월 3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585.00
성전건립:	\$ 40.00
Total :	\$ 625.00

2008-32

2008. 8. 10.

연중 제 19주일

- ▶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10월- 3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